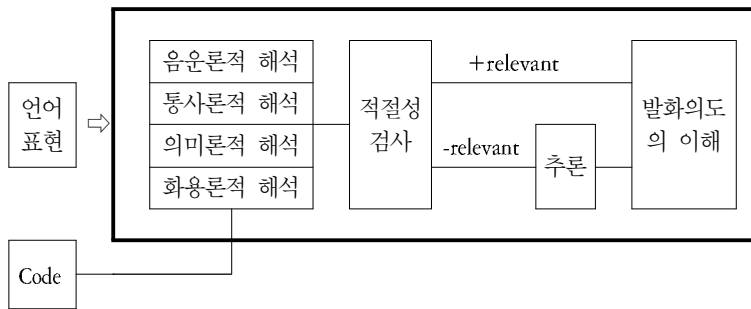


지시체가 관습적으로 지시하는 발화수반력에 대한 해독이며, 이런 점에서 발화 의미의 해독 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화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에는 직시표현의 해독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성 검토과정과 실제적 발화수반력의 이해과정은 발화 의미의 바탕 위에서 발화 의도를 해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습성에 근거해서 해석된 발화 의미로부터 별도의 추론과정 없이 발화 의도가 이해되는 경우에도 발화 의미가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서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추론이 개입되는 이해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언어표현의 이해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이 도식에서는 언어표현이 입력되면 한 언어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코드의 바탕위에서¹⁷⁾ 이 언어표현에 대한 음운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그

16) 여기서 제시한 적절성 검사와 추론과정도 넓은 의미에서 화용론적 해석과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제시된 화용론적 해석과정에는 직시적 표현에 대한 해석과 발화수반력 지시체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발화 의미의 해석과정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이 화용론적 해석과정을 적절성 검사 및 추론과정과 분리한 것은 발화 의미로부터 발화 의도를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을 모델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17) 코드는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그것의 바탕 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측면과 각 구성원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코드에 대한 지식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Bühler u.a. (1983: 40f.) 참조.

리고 화용론적 해석이 동시에 가해진다. 화용론적 해석에서는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관습적으로 지시하는 발화수반력을 파악하는 과정과 직시 표현과 같이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화용론적 변수들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¹⁸⁾ 또한 간접화행, 대화함축, 은유적 표현, 반어적 표현들 가운데 반복적인 사용으로 이미 관습화된 것들은 의미론적 해석과 화용론적 해석 과정에서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로 발화의미가 이해되는데, 이렇게 해석된 발화의미는 상황과 문맥, 그리고 세계지식의 바탕 위에서 적절한 것인지 검사를 하게 되며, 이 검사결과 적절한 해석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바로 발화의도를 찾아내게 된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론과정이 도입된다.¹⁹⁾

추론과정에서는 어떤 추론 방식을 사용할 때 언어표현으로부터 적절한 발화의도를 해석해낼 수 있는지 체크하게 되는데, 이때 4장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한 지식이 사용된다.²⁰⁾ 즉 해당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가 어떤 유형일 때 적절한 발화의도가 해석되는지 검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5.2장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언어적·비언어적 지식이 사용된다.²¹⁾

18) 여기서는 축어적 의미가 먼저 이해된 후 그것의 바탕위에서 발화의미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19)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의미는 이해했지만 발화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은 이해했지만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발화의미와 발화의도의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적절성 검사와 추론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상술하는 것은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Sperber/Wilson(1995) 등을 참조하시오.

21) 언어습득과정에는 이런 유형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반어법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또 추론을 통해 해석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반어법의 사용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추론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5. 맺음말

언어표현과 발화의도의 관계는 관습성과 합성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둘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특정한 유형에 국한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둘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찾아 유형화하고, 이 유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는 논의의 전제를 이루는 개념들인 언어표현, 축어적 의미, 발화의미, 그리고 발화의도를 정의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 네 가지 다른 층위를 형식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형식화 방법을 이용하여 4장에서는 언어표현과 발화의도 사이의 관계를 모두 11가지로 유형화했는데, 이 유형들에 대한 지식은 화자에게 있어서는 언어표현에 답을 수 있는 발화의도의 유형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청자에게 있어서는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과 실제로 수행된 발화수반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명제내용과 실제 명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 따라서 이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기서 제시된 유형들을 상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1번 각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4장에서 제시한 유형들 이외에 더 많은 유형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찾는 것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겼다.

22) 예문 (13)에서 B의 발화와 같이 대화격물을 의도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유발되는 대화함축의 경우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명제내용과 실제 명제내용 사이에 아무런 의미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5장에서는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관습화의 문제와 발화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식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표현으로부터 발화의도가 이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관습화는 정도의 문제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관습화된 것에서부터 거의 관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모델로 이런 측면까지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우(1997), 「화행과 언어적 단위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어 인과문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집, 63-88.
- 강창우(1998), 「인과문과 상관문의 의미 관계」, 『독일문학』 65집, 375-397.
- 강창우(2003), 「화용론」, 『독일어의 구조와 의미』, 역락, 서울, 327-367.
- 강창우(2005), 「통사적 단위와 의사소통 단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독어학』 11집, 47-70.
- 강창우(2006), 「간접화행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한국어, 독일어, 영어를 중심으로」, 『독어학』 13집, 235-259.
- 서유진(2006), 『의사소통과정에서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수행하는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은(2003), 『간접화행 이해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용(1996), 『은유와 환유』, 신지서원, 부산.
- 정희자(2001), 「의사소통과 추론」, 『외대 어문논집』 16집, 63-89.

Austin, J.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ierwisch, M.(1980), "Semantic Structure and Illocutionary Force", Searle, J. R./Kiefer, F./Bierwisch, M.(ed.):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Dordrecht/Boston: D. Reidel, 1-35.
- Bühler, H. u.a.(1983), *Linguistik I. Lehr- und Übungsbuch zur Einführung in die Sprachwissenschaft*, Tübingen: Niemeyer.
- Bußmann, H.(2002),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Kröner.
- Fiumara, G. C.(1995), *The metaphoric process. Connections between language and life*, London/New York: Routledge.
- Franck, D.(1975), "Zur Analyse indirekter Sprechakte", Ehrlich, V./Finke, P. (Hg.): *Beiträge zur Grammatik und Pragmatik*, Kronberg/Ts.: Scriptor, 219-231.
- Franke, W.(1990), *Elementare Dialogstrukturen. Darstellung, Analyse, Diskussion*, Tübingen: Niemeyer.
- Frege, G.(1986), *Funktion, Begriff, Bedeutung*,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Graffe, J.(1990), *SICH FESTLEGEN UND VERPFLICHTEN: Die Untertypen kommissiver Sprechakte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Münster/New York: Waxmann.
- Grewendorf, G./Hamm, F./Sternefeld, W.(1987), *Sprachliches Wissen. Eine Einführung in moderne Theorien der grammatischen Beschreibung*, Frankfurt a.M.: Suhrkamp.
- Grice, H. P.(1979), "Logik und Konversation". Meggle, G. (Hg.): *Handlung, Kommunikation, Bedeutung*, Frankfurt a.M.: Suhrkamp, 243-256.
- Hindelang, G.(1978), *Auffordern. Die Untertypen des Aufforderns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Göttingen: Kümmerle.
- Hindelang, G.(2000), *Einführung in die Sprechakttheorie*, Tübingen: Niemeyer.
- Indurkha, B.(1992), *Metaphor and Cognition. An Interactionist Approach*,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ang, C.-U.(1996), *Die sogenannten Kausalsätze des Deutschen. Eine Untersuchung erklärenden, begründenden, rechtfertigenden und argumentierenden Sprechens*, Münster/New York: Waxmann.

- Kittay, E. F.(1989), *Metaphor. Its cognitive force and linguistic structure*, Oxford: Clarendon Press.
- Marten-Cleef, S.(1991), *GEFÜHLE AUSDRÜCKEN. Die expressiven Sprechakte*, Göppingen: Kümmerle.
- Meibauer, J.(2001), *Pragmatik. Eine Einführung*, Tübingen: Stauffenburg.
- Meyer-Hermann, R.(1976), “Direkter und indirekter Sprechakt”, *Deutsche Sprache* 4, 1-19.
- Panther, K./Thornberg, L.(1998), “A cognitive approach to inferring i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30, 755-769.
- Radman, Z.(1997), *Metaphors: Figures of the Mind*,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Rolf, E.(1983), *Sprachliche Informationsbehandlungen*, Göppingen: Kümmerle.
- Schwarz, M.(1992), *Einführung in die Kognitive Linguistik*, Tübingen: Francke.
- Searle, J. 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R.(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R./Vanderveken, D.(1985), *Foundations of Illocutionary Log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ökeland, W.(1980), *Indirektbeit von Sprechhandlungen*, Tübingen: Niemeyer.
- Sperber, D./Wilson, D.(1995), *Relevance. Communication & Cognition*, Oxford/Cambridge: Blackwell.
- Zillig, W.(1982), *Bewerten. Sprechakttypen der bewertenden Rede*, Tübingen: Niemeyer.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31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일

ABSTRACT

Zum Verhältnis zwischen sprachlichem Ausdruck und Äußerungsabsicht

Kang, Chang-Uh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verschiedene Verhältnisse zwischen sprachlichem Ausdruck und Äußerungsabsicht herauszufinden und zu typisieren und ein Erklärungsmodell herauszuarbeiten, das den Prozess des Verstehens der Äußerungsabsicht aufgrund des sprachlichen Ausdrucks angemessen darstellt. Nachdem im 2. Kapitel ein kurzer Überblick über den Forschungsstand gegeben wurde, werden die zentralen Begriffe dieser Untersuchung wie 'sprachlicher Ausdruck', 'wörtliche Bedeutung', 'Äußerungsbedeutung' und 'Äußerungsabsicht' näher betrachtet und definiert. Darauf hin werden sie wie folgt formalisiert:

- sprachlicher Ausdruck: $f_i(p)$
- wörtliche Bedeutung: $f_i(P)$
- Äußerungsbedeutung: $F_i(P)$
- Äußerungsabsicht: $F_j(Q)$

Mit Hilfe dieser Formalisierungsmethode werden im 4. Kapitel Typen der Verhältnisse zwischen sprachlichem Ausdruck und Äußerungsabsicht, die in dieser Untersuchung herausgefunden wurden, wie folgt dargestellt:

[Typ 1] $f_1(p) \rightarrow F_1(P)$

[Typ 2] $f_1(p) \rightarrow F_2(P)$

[Typ 2-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2(P)$ [Verstehen durch Schlussfolgerung]

[Typ 2-2] $f_1(p) \rightarrow F_2(P) \rightarrow F_2(P)$ [Verstehen aufgrund der Konvention]

[Typ 3] $f_1(p) \rightarrow F_1(Q)$

[Typ 3-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1(Q)$ [Verstehen durch Schlussfolgerung]

[Typ 3-2] $f_1(p) \rightarrow F_1(Q) \rightarrow F_1(Q)$ [Verstehen aufgrund der Konvention]

[Typ 4] $f_1(p) \rightarrow F_2(Q)$

[Typ 4-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2(Q)$ [Verstehen durch Schlussfolgerung]

[Typ 4-2] $f_1(p) \rightarrow F_2(Q) \rightarrow F_2(Q)$ [Verstehen aufgrund der Konvention]

[Typ 5] $f_1(p) \rightarrow F_1(\neg P)$

[Typ 5-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1(\neg P)$ [Verstehen durch Schlussfolger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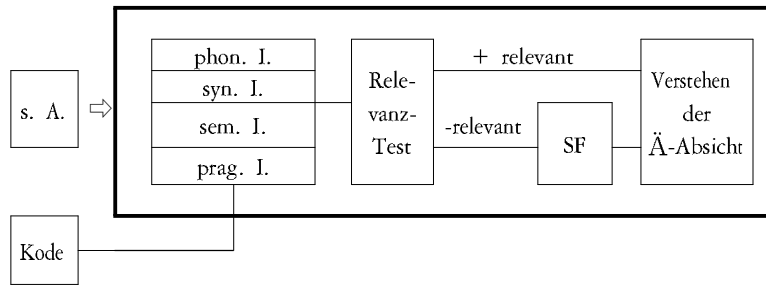
[Typ 5-2] $f_1(p) \rightarrow F_1(\neg P) \rightarrow F_1(\neg P)$ [Verstehen aufgrund der Konvention]

[Typ 6] $f_1(p) \rightarrow F_2(\neg P)$

[Typ 6-1] $f_1(p) \rightarrow F_1(P) \rightarrow F_2(\neg P)$ [Verstehen durch Schlussfolgerung]

[Typ 6-2] $f_1(p) \rightarrow F_2(\neg P) \rightarrow F_2(\neg P)$ [Verstehen aufgrund der Konvention]

Im Kapitel 5.1 wird über das Verstehen der Äußerungsabsicht aufgrund der sprachlichen Konvention diskutiert, im Kapitel 5.2 über das Verstehen der Äußerungsabsicht durch Schlussfolgerung. Im Kapitel 5.3 wird das folgende Modell herausgearbeitet, mit dem der Prozess des Verstehens der Äußerungsabsicht angemessen zu erklären ist:



s. A.: sprachlicher Ausdruck phon. I.: phonologische Interpretation
 syn. I.: syntaktische Interpretation sem. I.: semantische Interpretation
 prag. I.: pragmatische Interpretation SF: Schlussfolgerung
 Ä-Absicht: Äußerungsabsicht

